

“全國體典 5연패 영원히 남을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선수단 해단식에서 밝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국체전 5연패의 경기도선수단을 뜨겁게 맞았다.

김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선수단 환영식 및 해단식'에 참석, 제87회 전국체전 종합우승으로 5연패를 달성한 경기도선수단을 꽃다발 증정과 악수로 격려하고 선수단 총감독인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우승기, 우승배 봉납, 단기만남을 받았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우승은 바로 1천100만 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선수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경기도에 입혀 이룩한 훌륭한 성적"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경기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훌륭한 성적이다."

모든 어려운 조건 이겨내고 힘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서 이룩한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성적 올릴 수 있게 애쓰신 체육회 관계자, 선수님들, 개최까지 내려가서 선수들을 격려한 도의회 의원님들과 언론, 각 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놀라운 5연패의 신



김문수 지사가 10월24일 도청운동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전참가선수단 환영 및 해단식에 참석해 선수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는 내년 6연패를 향해 나가겠지만 도지사로서 1천100만 도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땀과 정성을 도민들

은 잊지 않고 보답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장, 서정석 용인시장, 양태홍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김용서 수원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國民公感 따뜻한 稅政운영 방침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100일 기본구상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취임 100일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기치로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 등의 기본구상을 밝혔다.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는 '따뜻한 세정'의 의미에 대해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

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라며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깨끗하고 국민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4일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인력을 축소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원관리 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무서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재산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원관리와 조사기능을 통합했으며 징세와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신설, 세원관리 인력보강으로 세원관리3, 4과 신설 등이다.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이 따뜻한 세정 실천차원에서 세무조사 축소와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청 조사조직 축소 및 세무서 조사과의 통폐합으로 감축된 조사집행인력 672명을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배치 시킨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영세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혹은 지능적으로 탈세행위가 포착될 때는 조사 강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체육대회 · 장기자랑 and 합도모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개최

의정부시새마을지도회는 10월23일 의정부체육관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 이학세 시의회 의장 등 새마을지도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했다.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모범 새마을지도자 35명에 대한 표창, 또한 사례발표로는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중간점검 사례발표와 휴경기 및 방역봉사, 1사1촌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바람직한 지도자상 구현을 위해 소양교육이 열렸으며, 오후1시부터는 새마을지도자 회원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와 장기자랑대회가 열렸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시민화합과 복지사회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는데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선두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 화합과 단결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의정부시새마을지도회는 10월23일 의정부체육관에서 1천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갖고 새마을 새정신으로 새나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했다" 또한 박영국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장은 "새마을 새정신으로 새나라 만들기에 노력하는 회원들께 감사 드리며, 새마을휴경기 등 1사1촌 운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실버복지는孝의 뿌리”

김 지사, 실버생활관리사 奉仕者대회 참석

제6회 실버생활관리사 봉사자대회 10월23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봉사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경기농협-중앙대학교 산학협력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봉사자대회는 감사패 수여와 우수봉사자 표창, 신규 실버봉사자 단원봉사단기 수여식, 경기도립극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회에 참석해 "오늘 희망을 봤다. 시골에 노쇠한 노인들을 정성껏 주물러 주시는데,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계시니 저도 별로 늙는 게 두렵지

않다"며 "여러분들처럼 다른 댓가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공직의 모범이 된다"고 찬사를 보냈다.

김 지사는 또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는데, 농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높은 과고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우리의 친구이고, 답답한 농촌의 희망이고, 애국자요, 천사"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용 중앙대 총장, 박재근 경기농협 본부장, 김양희 중앙대 사회교육본부장, 정홍자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월23일 수원시 소재 경기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6회 실버생활관리사 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답답한 농촌의 희망이고 애국자요 천사라고 강조했다.

이종도 행발위 사무국장 행정자치부장관상 受賞

의정부경찰서, 경찰의 날 記念式에서



의정부경찰서는 10월20일 제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우수경찰관 표창 등 기념식을 가졌다.

의정부경찰서(서장 허남석)는 10월20일 11시 의정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제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김문원 의정부시장, 협력업체 위원장 및 허남석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광수 가능지구대 순찰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58명의 경찰관, 직원, 전의경이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종도 의정부경찰서 행정발

전위원회 사무국장이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시 치안을 도맡고 있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제61회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허남석 의정부경찰서장은 기념식 참석 내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전국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대통령 치사를 낭독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公演

11월 24일과 25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의정부시는 11월24일과 25일 2일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01년 5월 초연 이후 5년간 1천회 이상, 40만 관객을 동원한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보는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공연을 선보인다.

11월24일 오후7시30분과 11월25일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총3회에 걸쳐 무대에 올려지는 이번 작품은 말 못하는 막내 난장이 반달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백설공주 이야기를 순수한 짝사랑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난장이의 시점에서 짝사랑의 아픔과 순수한 마음을 잔잔하고 감동스럽게 표현한 아름다운 연극으로, 이 연극을 보고 나면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요즘의 각박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가슴보다는 머릿속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말없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주인공 반달이의 몸짓

하나 하나가 관객들의 감성을 뒤흔들 뿐 아니라 서정적인 음악과 때묻지 않은 배우들의 친진 난민한 연기가 돋보인다.

이 연극이 처음 무대에 올려졌을

때만 해도 동화를 소재로 한 줄거리를 때문에 어린이 전용극으로 알려졌지만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평일 관객의 95%이상을 성인 관객들이 메울 정도로 관객층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연극적 상상력이 빛나는 무대와 소품, 서정적인 음악과 안무가 그 감동을 더하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초연때부터 반달이역을 맡아 이미 스타로 발돋움한 최인경과 장영진, 고은경 등 원년 멤버들과 2002년부터 출연해 온 손승범, 오다현을 통해 2006년 서울공연에 출연했던 우승림, 김정음, 한지선 등이 출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공연이 11월24일 오후7시30분, 11월25일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등 모두 3회에 걸쳐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에서 개최된다.



의정부제일시장 국무총리상 수상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10월20일 시장실에서 전국 1천700여 재래시장 가운데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진권 제일시장명예회장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6 노인일자리 박람회 開催

의정부시 11월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시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2006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11월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기쁨,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노인들의 구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박람회는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송산노인복지회관이 공동으로 주관, 실시하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의정부시 거주 60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인사업체와 참여자간에 활

발한 구인·구직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의정부시 노인일자리박람회 사무국장은 사무직과 노무직, 생산직, 제조업 관련 직종, 시간제 직종 등 노년층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종에 걸쳐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킬 예정이다.

구인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업체 및 기관으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박람회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구인업체는 참가비가 없으며 취업정보 부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박람회사무국은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를 위해 행사 당일에 이력서 작성, 구직맞춤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며, 특히 의정부시는 성공적인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의정부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2006노인일자리 박람회를 11월6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다.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 유체에 힘쓰고 있으며, 구인업체 및 취업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